



저팔계를 닮으면 행복해진다

## 욕망을 서원으로

는 것이 필요하기에 계율을 지켜 이루어야 한다는 뜻에서 팔계라는 이름이 따로 붙였을 따름이다. 깨닫지 못하면 탐진치(貪瞋癡)의 삼독(三毒)이지만 깨달음을 통해 계정해(戒定慧)의 삼학(三學)을 이룬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이 속에 절묘하게 녹아 있다.

돼지 모습을 한 저승과 저팔계라는 두 이름을 지닌 존재, 이 속에 돼지로 형상화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깊은 통찰이 숨어 있다. 보통 탐욕은 부정적인 것으로, 추악한 것으로 말해진다. 서유기 속에서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고를 치는 저팔계의 모습 속에 그러한 측면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하기에 탐욕은 경계되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탐욕을 완전히 끊는다면 당신은 무슨 힘으로 살아야 할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라.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몰고 나가는 근원적인 힘은 바로 욕망이 아닐까? 그 욕망을 끊고 나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 남들은 욕망의 추구를 통해 많은 것을 성취하여 평평거리며 살고 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야!" 하면서 손가락

다. 그 부정적인 모습을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지닌 힘을 깨닫고,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는 계율을 통해 그 힘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이끌어 가는 과정이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힘에,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힘이 따로 있을까? 악을 지향하려는 힘, 선을 지향하려는 힘. 오욕락을 추구하려는 욕망의 힘, 불도를 성취하려는 서원의 힘. 그런 것이 각각 따로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방해가 되는 한쪽의 힘은 완전히 끊어 없애야 옳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굳이 들어야 할 [不二 법문]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저팔계가 그렇게 사고를 치면서도 끝내 삼장법사를 수행하여 불경을 구해오는 일을 온전히 마치고, 결국은 부처를 이룬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본디 천상의 관리였듯이 원래 나쁜 존재가 아니요, 또 없어서 안 될 존재다. 문제가 많이 일으키지만 그 욕망이라는 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추진해 나갈 어떤 힘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저팔계가 무엇이 문제를 일

돼지는 묘한 짐승이다. "너는 돼지같다"고 하면 누구나 화를 낼 것이다. 그런데 돼지꿈을 꾸라 하면 좋아한다. 또 고사를 지내거나 할 때는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한다. 죽으면서도 웃는 표정을 지은 돼지 머리 앞에... 자기가 그렇다는 건 인정할 수 없지만 묘한 주술적 힘을 지니고 있어 재수를 불러들이는 돼지...

돼지 가운데 가장 스타(★)로 부상한 것은 저팔계일 것이다. <서유기>에 등장하여 힘을 강하지만 먹을 것과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고질병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친근한 느낌과 웃음을 주는 존재가 바로 저팔계이다.

바로 이 저팔계라는 상징 속에 돼지가 가진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유기>는 단순한 공상소설이 아니라 현장 삼장의 인도 구법여행이라는 역사적 사실 속에 수많은 상징과 은유를 섞어서 불법 수행과정의 시작과 끝을 드러낸 보기 드문 작품이다. 그 속에서 우리의 탐욕을 상징하는 돼지로 형상화되고, 그러면서도 불경을 구하는 고난의 여정에 함께하여 결국 그 큰 목적을 이루는 돼지 저팔계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디 저팔계는 하늘세계에서 비술을 하던 이였고, 돼지 모습을 아니었다. 아름다운 은하수를 관리하는 천상의 관리였다. 죄를 짓고 하계로 추방되면서 재수 없이 돼지탈을 뒤집어 쓴 것일 뿐이다. 죄를 짓고 추방되었다는 사실이 저팔계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본디는 귀한 존재였다는, 그러나 지금은 보기싫은 탈을 쓰고 있다는 이중적 의미가 이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저팔계는 팔계(八戒)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삼장법사의 수행원이 되면서 받은 본디 법명은 오능(悟能)이다. 손오공(孫悟空), 사오정(沙悟淨)과 더불어 오(悟)자 돌림이다. 손오공이 공(空)의 진리를 깨달아 지혜를 성취하고, 사오정이 맑음(淨)을 깨달아 정(淨)을 성취한다면 저팔계는 자신이 지닌 능력을 깨달아 힘을 성취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욕망을 제어하

### 욕망 추구 · 탐욕 끊는 수행 두가지를 해소하는 절묘한 '상징'

### '팔계' 이름엔 깨달음 통해 삼학을 이룬다는 가르침 담겨 있어

벨고 있을 것인가? 아니 손가락도 빨면 안 되겠지. 그것도 일종의 욕구만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욕망에 초연하면서 혼자 고상한 경지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니 혼자만의 이상 추구라면 그것도 괜찮을지 모른다. 문제는 그러한 가르침에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쉽게 말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욕망에 초연하다 보니 현실사회에서는 일종의 낙오자 그룹으로 전락한다던? 좀 곤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의 불자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불자들이라고 해서 낙오자 그룹은 아니다. 그들은 현실문제에 대하여는 열심히 욕망을 추구하기도 하여 크게 성공한 이들도 많다. 그러한 불자들이 절이나 법회에 가서는 열심히 탐욕을 끊는 가르침을 배우고, 또 탐욕을 끊는 수행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로 돌아가서는 또 열심히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산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니까, 현실 사회에서는 할 수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잘못 산만큼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 업을 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삶인가? 그 곤란함을 해소하는 절묘한 상징이 바로 저팔계

오키면서도 결국 구법의 여행을 온전히 마치는 것은, 욕망이라는 길들여지지 않은 힘을 풀이켜 서원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욕망이라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또 무조건 없애야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길들여져야 하고 서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연기의 진리에 눈을 뜨고 부처님 자비광명의 가피를 입게 되면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움직이던 욕망이 자연히 나와 남을 함께 생각하는 서원으로 불교를 뜨는 것이다.

저팔계가 부처를 이루는 과정처럼 수많은 방황은 있었지 몰라도, 부처님의 가피 아래 차츰 물러서지 않는 서원의 힘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탐욕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던 힘은 세상을 이루어가는 절된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 저팔계의 법명이 무엇인가? 능력을 깨닫는 것이 아닌가? 저팔계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욕망이 절된 능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올해는 돼지해, 그것도 황금돼지의 해라 한다. 황금돼지라는 말은 오행사상이나 역학에 비추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지만, 그 말을 빌미로 우리 불자들은 진정한 황금돼지의 해를 이루어 보면 어떨까?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김유신 장군 모에서 나온 남석재 돼지 모양의 심이지산상(국립경주박물관 소장).

謹賀新年

佛紀 2551年

#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원장 대행  
 주지 혜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서동 101-62  
 전화: 사무처 031)470-3100  
 팩스: 031)470-3116  
 홈페이지: http://www.hanmaum.org

###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곡 4구 산 5-2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064-727-3100 FAX: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062-373-8801 FAX: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053-767-3100 FAX: 053)765-1600
- 충북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055-345-9900 FAX: 055)346-2179
- 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5-744-1321 FAX: 055)746-7825
- 광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041-852-9100 FAX: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043-259-5599 FAX: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033-651-3003 FAX: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055-643-0643 FAX: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061-284-1771 FAX: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홍덕동 592  
TEL: 054) 555-8871 FAX: 054)556-1989

###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클러시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1-718)460-2019 / FAX: (1-718)93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1-703)560-5166 / FAX: (1-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1-323)766-1316 / FAX: (1-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1-847)674-0811 / FAX: (1-847)674-0811
- CANADA (캐나다 지원)  
● Toronto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1-416)750-7943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54-11)4921-9286 / FAX: (54-11)4921-9286
- Tucuman (투쿠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49-2131)969551 / FAX: (49-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66-2)391-0091
- BRASIL (브라질)  
● Sao Paulo (상파울로 지원)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01127-000-Brasil  
TEL: (55-11) 3337-5291